13-20 [통권 537호] 2013. 05. 03.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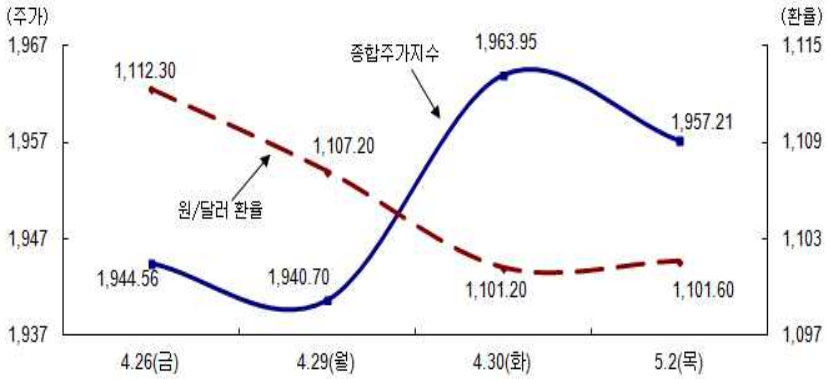
□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베이비부머 은퇴 줄여야 고용률 70% 가능하다

현대경제연구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26~5.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베이비부머 은퇴 줄여야 고용률 70% 가능하다

■ 산업화시대 주역의 은퇴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1963년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으로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주역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고 경쟁력을 갖춰 석유파동이나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수차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70~80%대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고용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맞물리면서, 2008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2008~2012년에 2.5%p 하락(76.8%→74.3%)하여, 15~64세 고용률이 0.5%p 상승(63.8%→64.2%)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과 저학력자의 고용률이 더 크게 떨어져, 성별·학력별 격차가 2008년 이후에 더 커졌다.

둘째, 베이비붐세대가 직장을 떠나는 주된 사유는 '일거리 부족'이며, '정년퇴직'의 비중은 낮으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퇴직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세대 57.0만명 중 23.4만명(41.0%)은 일거리가 없거나 임시적·계절적 일의 종료, 다니던 직장의 휴폐업 때문에 직장을 떠났다.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조기퇴직은 3.3만명(5.9%)으로 낮은 수준이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작업여건 불만족은 3.9만명(6.8%), 육아가사는 2.0만명(3.5%)이었다. 베이비붐세대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며, 정년연장 등의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셋째,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급감하는 가운데 농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004~2012년 제조업 종사자가 연평균 2.8만명씩 감소(116.2만→90.9만명)하여 숙련노동자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에서는 연평균 2.1만명씩, 음식숙박업에서는 연평균 1.7만명씩 감소하였다. 이는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순탄치 않으며, 기존의 자영업 베이비붐세대도 젊은 세대에게 밀려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귀농현상

을 반영하듯 농업 종사자가 연평균 3천명씩 증가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도 1천명씩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는 연 1.4만개씩(8.0만→20.9만), 사업서비스업에서도 1.4만개씩(11.5만→24.3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넷째, 여성과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2008~2012년에 여성의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50% 미만) 비중이 6.0%p(20.1%→26.1%)나 상승하여 남성의 1.0%p(3.0%→4.0%)를 크게 상회하였다. 초졸 베이비붐세대는 3.7%p 상승한 반면 대졸은 1.2%p 상승에 그쳤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본격적인 퇴직으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하였다. 당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2008~2012년에 연평균 0.9만명씩 증가하였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연평균 1.6만명씩 늘어났다. 공식실업률이 2%로 완전고용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고용상태는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들이 급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측면에서 희망은퇴시점(만65.5세)과 주된 직장에서의 실제퇴직시점(만54세)을 연결시켜 줄 '가교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는 베이비붐세대가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 시사점과 정책 제언

(고용률 전망)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과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취업자수가 2012~2017년에 72.3만명(연평균 14.5만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9.3%p 급락(74.3%→65.0%)할 전망이다. 정규직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남성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빈도가 높아,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고용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정책 제언)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있어 최대 걸림돌 중 하나며, 이들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농업을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 **둘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에 장기간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퇴출되지 않도록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되, 신규 진출은 자제해야 한다. **셋째**, 정년연장 법제화에 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지원,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을 통해 실제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직장에서의 인생2모작이 가능하도록 기업 및 사회 차원의 전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1. 산업화시대 주역의 은퇴

○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1963년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으로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주역**

- 베이비붐세대는 2012년 기준 714.9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20.1%에 달하며, 취업자도 53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2%를 차지

-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은 베이비붐세대는 경쟁력이 높아 수차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률을 유지
  - 베이비붐세대 중 대졸이상과 고졸의 비율은 각각 22.0%, 44.9%로, 베이비붐 이전세대(1946~1954년생)의 11.4, 28.9%를 크게 상회(2012년 기준)
  - 1970년대 중반 노동시장에 유입된 베이비붐세대는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시대의 주역으로서, 석유파동,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수차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70%대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

- 베이비붐세대는 '희망은퇴시점'과 '실제퇴직시점'의 괴리가 매우 큰 반면 '가교일자리'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비자발적인 은퇴 러시 우려
  - 국민의 희망 은퇴시점은 평균 65.5세(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이나, 주된 직장에서의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54세(방하남, 2009)에 불과하여 괴리가 심각
  - 하지만 퇴직시점과 희망은퇴시점을 연결시켜줄 '가교일자리'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베이비붐세대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고용률이 급락할 우려

- 제조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산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

< 베이비붐세대의 고용구조 >

(만명, % ; 201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a)	실업자(b)	비경활(c)		
15~64세	3,565	2,290	78	1,197	3.3	64.2
베이비붐세대	715 (20.1)	531 (23.2)	11 (14.1)	173 (14.5)	2.0	74.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2년)
주1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2012년 기준 만49~57세이며, 괄호는 15~64세 대비 비중임
주2 : 실업률=b/(a+b), 고용률=a/(a+b+c)

2.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

○ **(분석범위) 먼저 고용구조 전반에 대해 고찰한 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추가로 분석**

- **고용구조 전반** : 고용구조 측면에서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며, 전반적인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률 추이와 퇴직 사유를 고찰
  - **고용률** : 고용구조 전반을 고찰하는 지표로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이 있으며, 여기서는 고용률을 분석 지표로 삼음. 현정부는 고용률을 국정운영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5월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
  - **퇴직사유** : 베이비붐세대 고용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대규모 이동이며, 퇴직사유 분석을 통해 취업자로 견인할 방안 도출

- **취업자** : 취업 중인 베이비붐세대의 **산업별 구성 변화**와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를 통해 산업구조 및 일자리의 질 변화를 고찰
  - 취업자 분석은 주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여기서는 정책적 함의가 큰 산업별 구조 변화 및 임금수준을 분석

-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추이를 분석
  -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실망실업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었음' 인구이며,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었음이 대부분을 차지

< 분석 범위 >

	생산가능인구			
	고용구조 전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5~64세				
베이비붐세대	① 고용률 ② 퇴직사유	③산업별 구성 ④저임금근로자비중		⑤실망실업자· 쉬었음

주 : '고용구조 전반'이란 취업자·실업자·비경활의 구성 변화 및 변화 사유를 뜻함

① 본격적인 고용률 하락 국면 진입

○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맞물리면서, 2008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 2003~2008년 베이비붐세대 인구수는 연평균 1.1만명 줄어들고 취업자는 1.4만명 줄어들어, 고용률이 2003년에는 77.2%, 2008년에는 76.8%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5~64세 고용률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대조적
  · 2008~2012년 베이비붐세대의 취업자수 감소폭(연 -5.7만명)이 인구 자연감소분(연 -1.7만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률이 2.5%p 하락(76.8%→74.3%)
  · 15~64세 고용률이 같은 기간 0.5%p 상승(63.8%→64.2%)한 것과 대조적

-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위기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실제 퇴직연령(만54세)에 접어드는 베이비붐세대가 증가하기 때문
  · 2012년 현재 1955~1958년생이 만54세를 넘어섰으며, 향후 5년간 모든 베이비붐세대가 만54세를 넘어서면서 고용률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

<베이비붐세대의 고용구조 변화와 고용률 추이>

(천명, %)

연도		베이비붐세대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2003		7,274	5,612	128	1,534	2.2	77.2
2008		7,217	5,541	111	1,565	2.0	76.8
2012		7,149	5,312	110	1,727	2.0	74.3
연평균 증감수	'03~'08	-11	-14	-3	+6		-0.4%p
	'08~'12	-17	-57	0	+41		-2.5%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베이비붐세대는 2003년에는 만40~48세, 2008년에는 만45~53세, 2012년에는 만49~57세임

○ **(성별) 여성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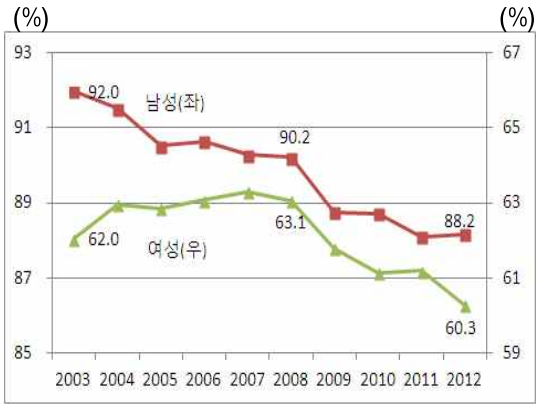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출산·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 베이비붐세대(2003년 만40~48세)가 다시 취업에 나서면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축소
  · 2003~2008년 여성 고용률이 1.1%p 상승(62.0%→63.1%)하여 남성 고용률이 1.8%p 하락(92.0%→90.2%)한 것과 대조적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다시 확대
  · 2008~2012년 여성의 고용률 하락폭은 -2.8%p(63.1%→60.3%)로, 남성의 하락폭 -2.0%p(90.2%→88.2%)를 상회
  · 2008년 기준 여성과 남성 베이비붐세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42.7%,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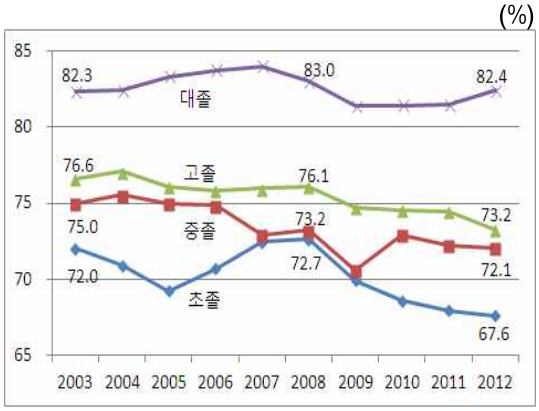
○ **(학력별) 저학력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고학력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력별 고용률 격차가 크게 확대**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가파르게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학력별 고용률 격차가 확대
  · 2008~2012년 초졸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5.1%p 급락(72.7%→67.6%)한 반면 대졸자는 -0.6%p에 그침
  · 2008년 기준 초졸과 대졸 베이비붐세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51.1%, 17.1%

<베이비붐세대의 성별 고용률>



<베이비붐세대의 학력별 고용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베이비붐세대는 2003년 기준 남성 367.2만명, 여성 360.2만명, 초졸 75.1만명, 중졸 139.4만명, 고졸 341.8만명, 대졸 171.3만명임

② 주된 퇴직 사유는 일거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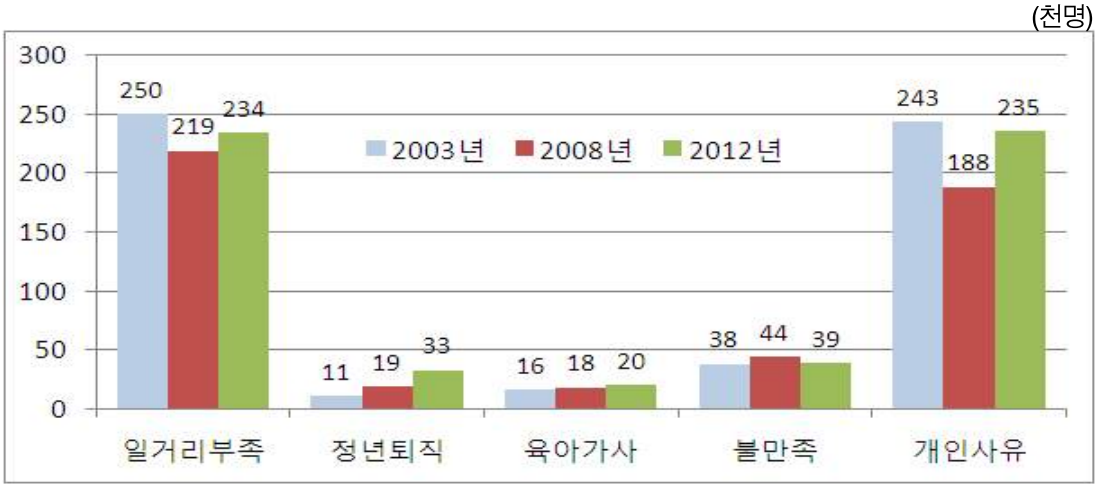
○ 주된 퇴직 사유는 일거리 부족이며, 정년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

- 베이비붐세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일거리 부족 때문으로, 그만큼 장년층 일자리시장이 부족함을 반영
  - 지난 1년간 퇴직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 57.0만명 중 23.4만명(41.0%)이 일거리가 없거나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다니던 직장의 휴폐업 때문이라고 응답
  -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1.6%(373.9만명 중 118.0만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이는 50대를 위한 노동시장, 즉 주된 직장에서의 실제 퇴직시점과 희망 은퇴시점을 잇는 '가교일자리' 시장이 매우 불완전함을 반영

- 정년퇴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베이비붐세대는 아직 적은 수준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년퇴직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떠난 베이비붐세대가 2003년 1.1만명, 2008년 1.9만명, 2012년 3.3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증가폭이 점점 더 커질 전망
  - 다만 정년퇴직자의 대부분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고 전체 퇴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 기준 5.9%)도 아직은 작은 편임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사유>

(천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일거리부족'은 일거리가 없어서, 다니던 직장의 휴폐업, 임시적·계절적 일의 종료 포함
'정년퇴직'은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를 포함
'불만족'이란 근무시간, 보수 등의 작업여건에 대한 불만족을 뜻함
주2 : 2012년 기준 비중은 일거리부족 41.0%, 정년퇴직 5.9%, 육아가사 3.5%, 불만족 6.8%, 개인적 사유 41.1%, 기타 1.8%임

③ 지는 제조업, 뜨는 농업

○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급감하는 가운데, 농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제조업에서 베이비붐세대의 감소세가 뚜렷하여 숙련노동자의 유출이 심각
  · 제조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2004~2012년에 연평균 2.8만명씩 감소(116.2만→90.9만명)하여, 기타 세대가 연평균 2.0만명씩 증가한 것과 대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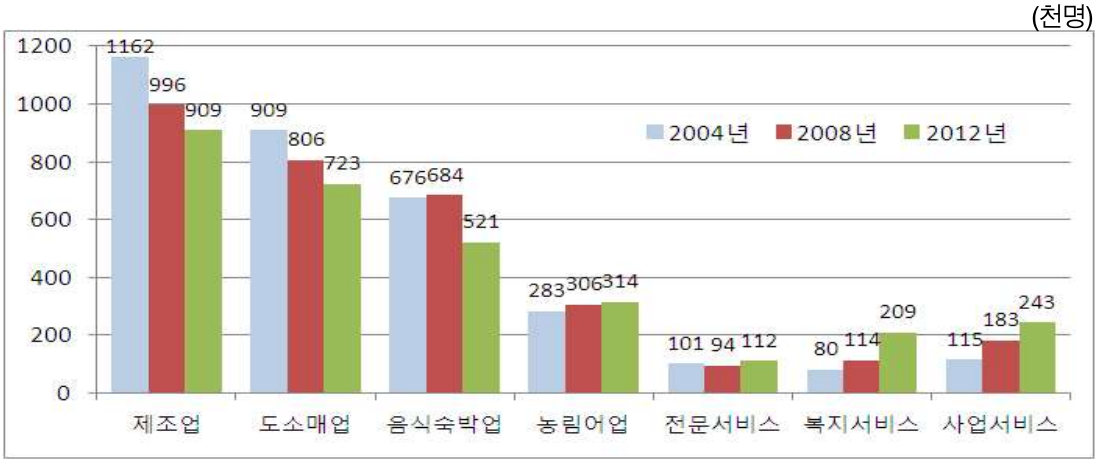
- 자영업이 많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베이비붐세대의 퇴출 현상이 뚜렷
  · 도소매업에서 베이비붐세대가 2004~2012년에 연평균 2.1만명씩 감소(90.9만→72.3만명)하여, 기타 세대가 연 0.8만명씩 증가한 것과 대조적
  · 음식숙박업에서도 베이비붐세대가 연평균 1.7만명씩 줄어들어(67.6만→52.1만명) 기타 세대가 적정 수준을 유지(연평균 0.0만명)한 것과 대조적
  · 이는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순탄치 않으며, 기존의 자영업 베이비붐세대도 젊은 세대에게 밀려나고 있음을 반영

- 반면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 존재
  · 베이비붐세대의 귀농현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2004~2012년에 연평균 3천명씩 증가(28.3만→31.4만)하여 기타 세대가 연평균 3.6만명씩 감소한 것과 대조적
  ·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고숙련자의 일부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전업하는데 성공하면서 연평균 1천명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04~2012년에 연평균 1.4만명씩 증가(8.0만→20.9만)하였고, 사업서비스업에서도 연평균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11.5만→24.3만)
  · 기타 세대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연 7.6만명씩,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연 3.4만명씩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산업별 종사자 추이>

(천명)



자료 :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21개 산업) 기준

주1 : 2004~2012년 비중 변화는 제조업 20.7%→17.1%, 도소매업 16.2%→13.6%, 음식숙박업 12.1%→9.8%, 농림어업 5.1%→5.9%, 보건복지서비스업 1.4%→4.9%, 사업서비스업 2.1%→4.6%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4년)에서 대분류가 크게 바뀌어 2003년을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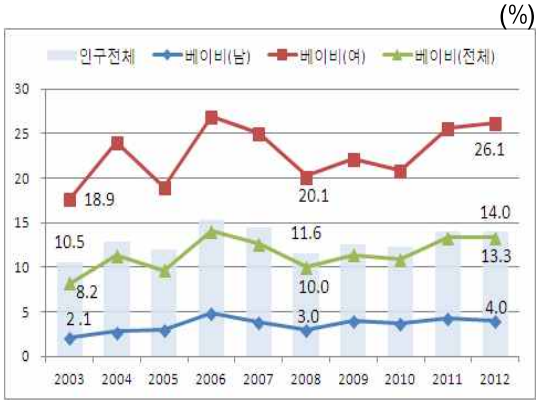
④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여성과 저학력자 중심으로 상승

○ 여성과 저학력자의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50% 미만)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성 및 고학력자와의 격차가 더욱 커짐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2012년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6%p(20.1%→26.1%)나 상승해 남성의 1.0%p(3.0%→4.0%)를 크게 상회
  - 같은 기간 대졸 베이비붐세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2%p(3.0%→4.2%) 증가에 그친 반면, 초졸은 3.7%p, 중졸은 3.4%p, 고졸은 3.6%p 확대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



<학력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저임금근로자'란 임금이 중위임금의 50% 미만인 임금근로자를 뜻함

⑤ 실망실업자 및 그냥 쉬는 자 급증

○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겹치면서 구직난이 심화되고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1]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
  -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란 당장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도 있으나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베이비붐세대의 실망실업자는 2003년 6.0만명에서 2008년 5.8만명으로 안정적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2년에 9.3만명으로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육아·가사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 2003~2008년에 연평균 1.2만명씩 증가(11.7만→17.9만명)하다가 2008~2012년에는 연평균 1.6만명씩 증가(17.9만→24.1만명)하여 증가폭이 점차 확대

- 실망실업자 및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하는 이유는 가교 일자리 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노동시장적 측면과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는 개인적 측면이 중첩되기 때문
  -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시점과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은퇴시점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일자리' 시장이 좁아,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실망실업자 증가
  - 개인 차원에서 퇴직 후 가교일자리를 통한 인생2모작 계획이 부족할 경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증가
  - 특히 고학력 정규직 베이비부머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그냥 쉬는 경우가 빈번

1) discouraged worker'의 포괄범위는 국가마다 다름. 현대경제연구원의 '실망실업자' 정의는 유럽연합, 멕시코 등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임. 한편 한국 통계청은 '구직단념자'를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않았고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로 좁게 정의하고 있음(미국 등과 유사). 통계청의 '구직단념자'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실망실업자'로 명명하였음.

○ **베이비붐세대의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실망실업자나 그냥 쉬는 자가 증가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은 악화**

- 베이비붐세대의 실업률(OECD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매우 양호한 것처럼 보임
  · 베이비붐세대의 실업률은 2003년 2.2%, 2008년 2.0%, 2012년 2.0%로 완전고용 수준임

- 하지만 실망실업자나 '그냥 쉬고 있는 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공식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하면서 체감 고용사정은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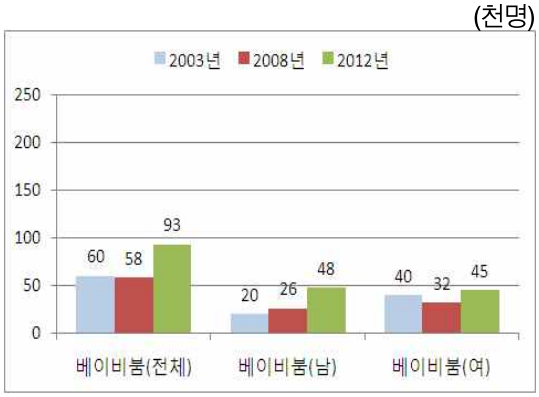
○ **(성별) 증가하고 있는 실망실업자 및 그냥 쉬는 자의 대부분은 남성임**

- 남성 베이비붐세대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취업준비·육아·가사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않고 그냥 쉬는 경우가 많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망실업자까지 증가
  · 2008~2012년 취업자가 12.0만명 줄어들었으며, 그중 8.0만명이 그냥 쉬거나 실망실업자가 됨

- 반면 여성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에서 가사·육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자의 증가폭은 제한적임
  · 2008~2012년 취업자가 10.9만명 줄어들었으나, 실망실업자 및 쉬고 있는 여성 베이비붐세대는 1.6만명 증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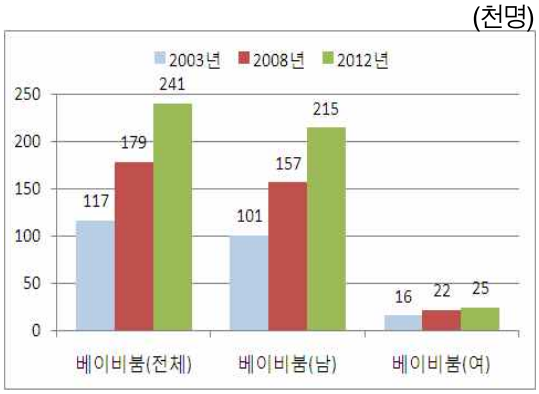
<베이비붐세대의 실망실업자 추이>

(천명)



<베이비붐세대의 '쉬었음' 추이>

(천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3.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시사점

○ **(고용률 전망) 2012~2017년 베이비붐세대의 취업자가 연평균 14.5만명씩 감소함에 따라, 고용률이 74.3%에서 65.0%로 9.3%p 급락할 전망**

- **가정**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이미 퇴직과 은퇴를 경험한 직전세대(1946~1954년생)의 취업자수 변화를 기초로 추계
  - **베이비붐세대 인구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적용
  - **취업자수 전망** : 베이비붐세대의 직전 세대의 2003~2012년 평균 취업자 증감률(-2.9%)을 적용

- **고용률** : 2012~2017년 베이비붐세대 고용률이 9.3%p나 급락(74.3%→65.0%)하여, 2003~2008년의 -0.4%p(77.2%→76.8), 2008~2012년의 -2.5%p(76.8%→74.3%)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베이비붐세대 취업자는 2012~2017년에 연평균 14.5만명씩 감소(531.2만→458.9만명)하여, 인구 자연감소분 -1.7만명(714.9만→706.4만명)을 크게 상회
  - 2013년 현재 베이비붐세대(만50~58세)의 절반은 이미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인 만54세에 이르렀고, 2017년에는 모든 베이비붐세대(만54~62세)가 평균 퇴직연령을 넘어서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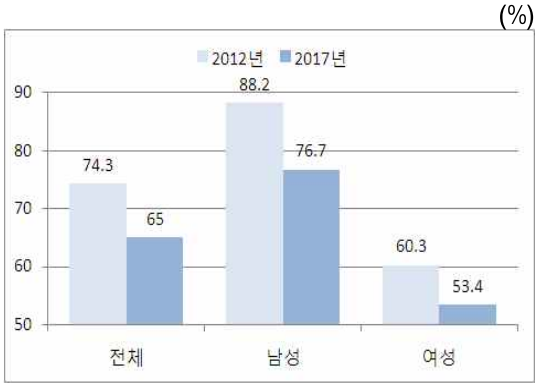
- **성별** : 정규직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남성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빈도가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고용률이 하락할 전망
  - 남성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가 2012년 317.0만명에서 2017년 269.5만명으로 연평균 9.5만명씩 감소하여, 고용률이 9.8%p 급락(88.2%→78.4%)
  - 여성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가 연평균 4.9만명씩 감소(214.2만→189.7만)하여 고용률이 6.3%p 하락(60.3%→54.0%)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 전망>

(천명, %)

연도	베이비붐세대		고용률
		취업자	
2012	7,149	5,312	74.3
2017	7,064	4,589	65.0
연평균 증감수	-17	-145	-9.3%p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자체 추산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있어 최대 걸림돌 중 하나**

- 고용노동부는 3월말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연평균 47.6만개)를 추가로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 특히 장년층(55~64세)에서 14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17년에 고용률을 67.8%로 끌어올릴 계획

- 베이비붐세대의 급격한 은퇴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
  - 본 보고서의 전망과 같이 베이비붐세대가 2012~2017년에 연평균 14.5만명씩 은퇴한다면, 매년 신규일자리 47.6만개 창출이 쉽지 않음

- 정부의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책 제언

○ **첫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농업을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

- 장년층 특성에 맞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학력 베이비붐세대가 전문성을 살리면서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여건 마련
  · 2004~2012년 베이비붐세대가 연평균 3.2만명씩 줄어드는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는 연평균 0.1만명씩 증가
  · 베이비붐 이전세대(1946~1954년생)도 인구수가 연평균 7.8만명 줄어드는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는 연 500명씩 증가
  · 전문직에 종사하는 숙련도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창조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베이비붐세대의 귀농 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이 농업 분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화
  · 2004~2012년에 베이비붐세대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연평균 3천명씩 증가하였고, 베이비붐 이전세대도 2,500명씩 증가
  ·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부터 전업(轉業) 컨설팅을 강화

- 장년층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퇴직시점과 은퇴시점을 잇는 '가교 일자리'의 핵심 분야로 육성
  · 2004~2012년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연평균 9.0만명 증가하였는데, 그중 베이비붐세대는 1.4만명,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0.6만명이었음
  · 한편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연평균 4.8만명 증가하였고, 그중 베이비붐세대는 1.4만명,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0.9만명을 차지
  ·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내에서도 장년층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개발 지원

○ **둘째, 제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베이비붐세대가 전공을 살리면서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숙련노동자의 이탈 속도 완화**

- 2012년 현재 제조업 종사자 410.5만명 중 90.9만명(21.9%)이 베이비붐세대로, 오랫동안 숙련을 쌓았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핵심 계층
  · 90.9만명 중 49.3만명은 상용직근로자로서,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또한 고용주는 8.9만명이고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도 12.8만명에 달하므로, 전문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장기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 베이비붐세대가 퇴출되지 않도록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되, 신규 진출은 자제**

- 자영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의 상당수는 업력(業歷)이 길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퇴출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추정
  · 자영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의 49.1%(203.2만명 중 99.8만명)는 10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자영업자도 27.8%(56.6만명)에 달하지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매년 4만명의 베이비붐세대가 퇴출
  · 업력이 길고 전문성을 갖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되, 과당경쟁이 심각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새로이 진입하는 것은 자제

○ **넷째,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법제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및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

- 2012년 현재 취업 중인 베이비붐세대 531.2만명 중 188.7만명(35.5%)이 상용근로자로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퇴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
  · 정년연장 법제화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현실을 감안, 기업문화의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2012년 직장을 그만둔 베이비붐세대 57.0만명 중 정년퇴직자는 0.8만명에 불구하고,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를 합쳐도 3.3만명임(5.9%)
  ·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법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다섯째, 새로운 직장에서의 인생2모작이 가능하도록 기업 및 사회 차원의 전직 지원 시스템 강화**

- 기업 차원에서 퇴직예정자의 전직(轉職)을 돕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장년층의 전직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참고 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2011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2012

방하남 외,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손유미, 김찬훈,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신동균,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진면 외,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전망』, 산업연구원, 2012

통계청, "고용동향"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호

한국고용정보원, "베이비부머의 취업 및 임금 구조와 시사점", 『고용이슈』, 2012

현대경제연구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제주평』, 2009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2013.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995』, 1995

OECD,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2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1.9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3
일본	-0.6	-7.3	-2.8	10.4	0.6	2.0	6.1	-0.9	-3.7	0.2	1.6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0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4월 26일	5월 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67	1.63	-0.04%p
	엔/달러	77.66	79.37	85.86	99.37	97.31	-2.06￥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006	1.3180	0.017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713	14,832	119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3,884	13,694	-19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52	2.44	-0.08%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12.3	1,101.6	-10.7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44.6	1,957.2	12.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4월 26일	5월 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2.92	93.95	1.03$
	Dubai	104.89	92.89	107.99	101.07	97.87	-3.20$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5.40	286.69	1.2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3.1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5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2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1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 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5.6
	수 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6.4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